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Novatek poised to sign for up to 10 LNG carriers at two yards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Novatek으로부터 수 주 내로 Ice-class LNG선을 최소 5척 수주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Novatek이 대우조선해양과 Hudong-Zhonghua Shipbuilding(Group)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사에 5척씩, 총 10척의 Ice-class LNG선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Idle containership fleet hits all-time high

5월 11일 Alphaliner 집계에 따르면, 운항을 중단 중인 컨테이너선이 524척(265만TEU)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이는 전체 컨테이너선대의 1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됨. COVID-19의 영향과 스크러버 개조공사를 위해 야드에 보내진 컨테이너선들의 인도지연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Buyers re-enter LNG market: Poten

Poten & Partner에 따르면, LNG구매자들이 LNG 확보를 위해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시장에서 주로 협상이 진행 중인 LNG화물은 2023년 물량이며 구매자들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됨.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가 완화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이 수요 성장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Upstream)

로테르담 LNG판매 증가세

유럽 최대 벙커링(연료 공급) 항만인 로테르담 항만의 1분기 LNG 연료 판매량이 15,710톤으로 증가했다고 보도됨. 이는 전년동기 5,403톤보다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도됨. 로테르담항의 LNG 연료 판매량은 2016년 100톤에서 2019년 31,944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노조, 28일 부분파업 예고...임금교섭은 계속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이달 28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고 보도됨. 노조는 28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노조는 지난해 5월 시작한 임금협상이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역대 최고 신용등급 회복 가능할까

한국신용평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달려있던 부정적인 등급전망을 떼어내고 안정적 등급전망을 부여했다고 보도됨.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신용등급은 AA-이며, 이번 등급전망 변경으로 인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신용등급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도됨. (한국경제)